우리집을 지켜주는 행운의 화환

화환(리스)

정읍시립박물관 문화가있는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동지	22	23	24	25 크리스마스	26
27	28	29	30	31		

매년 12월 25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12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동지입니다. 동지를 떠올리면 '팥죽 먹는 날'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읍시립박물관과 함께 동지와 크리스마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 동지冬至는 어떤 날?

동지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설 다음가는 새해라는 뜻의 '아세' 또는 '작은 설'이라고도 하며, 태양 위치에 따라 계절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24절기 중에서 22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동지첨치冬至添齒'라고 들어보셨나요?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뜻으로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처럼 동지에는 팥죽을 먹었답니다. 그렇다면 동지에 팥죽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음양사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음은 밤, 양은 낮을 뜻하는 것으로, 밤이 가장 긴 동지는 음의 기운이 가장 세고 양의 기운이 가장 약한 날이 됩니다. 또한 음양 사상에서는 붉은색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오는 양의 색이기 때문에, 붉은색 팥죽을 먹으면 질병과 귀신을 물리치고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집안에 있는 귀신을 모조리 쫓아내기 위해 팥죽을 담은 그릇을 방, 마루, 헛간, 장독대 등 집안 곳곳에 놓은 후, 대문과 벽에 팥죽을 뿌리고 나서 온 가족이 함께 먹었답니다.

이처럼 나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벽사'라고 하였는데요.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도 문에 걸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행운과 행복을 들어오게 하는 도구가 있었으니. 바로 크리스마스에 흔히 볼 수 있는 화환(리스)입니다.

/ 크리스마스 리스 Christmas Wreath

크리스마스에 행운을 기원하며 현관문이나 방문에 걸어두는 화환인 리스는 영원, 생명의 순환, 승리, 성취, 태양, 광명, 추위를 이겨내는 힘 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는 1839년 독일 함부르크의 신학자이며 교육자였던 '요한 힌리히 비헤른'이 고안한 아드벤츠크란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자신이 돌보던 고아들이 매일같이 크리스마스가 언제인지 물어보자, 오래된 마차의 나무 바퀴를 가져와서 흰색 큰 초 4개와 빨간색 작은 초 24개를 꽂아 하루에 하나씩 켜서 날짜를 셀 수 있게 했답니다. 흰색 큰 초는 일요일에, 빨간색 작은 초는 평일에 켬으로써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면 모든 촛불이 방안을 빛나게 밝혔습니다.
이후 1860년 경부터 전나무 가지로 바퀴를 꾸미기 시작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 이 화환을 매달고 싶어 하면서 편의성을 위해 점차 크기와 촛불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코로나 19'라는 질병을 물리치고 따듯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게 해줄 팥주머니 손난로와 우리 집을 지켜주는 행운의 화환(리스)를 만들어보아요.

준비물

체험키트에 들어있어요

리스틀, 장식용 탈, 조명 전구,
갈색 마끈, 흰색 뜨개실, 투명줄, 꽃



집에서 준비해주세요

가위, 싸인펜 또는 색연필



우리집을 지켜주는
행운의 화환

화환(리스)



하나

리스틀에 갈색 마끈을 감아요

갈색 마끈을 감으면 꽃을 꽂는게 더 쉬워요

우리집을 지켜주는
행운의 화환

화환(리스)



둘

리스틀 사이사이에 꽃을 꽂아 장식해요

불필요한 이파리는 적당량만 남기고 가위로 자른 다음 꽂아요



셋

반짝반짝 조명 전구를 감아요

조명전구의 철사로 꽃을 살살 감으면 꽃이 고정돼요

우리집을 지켜주는
행운의 화환

화환(리스)



넷

장식용 탈을 색칠해서 투명줄로 매달고
흰색 뜨개실로 리스를 묶어 문 앞에 매달아요



완성

조명 전구 스위치를 켜요